

삼성 KP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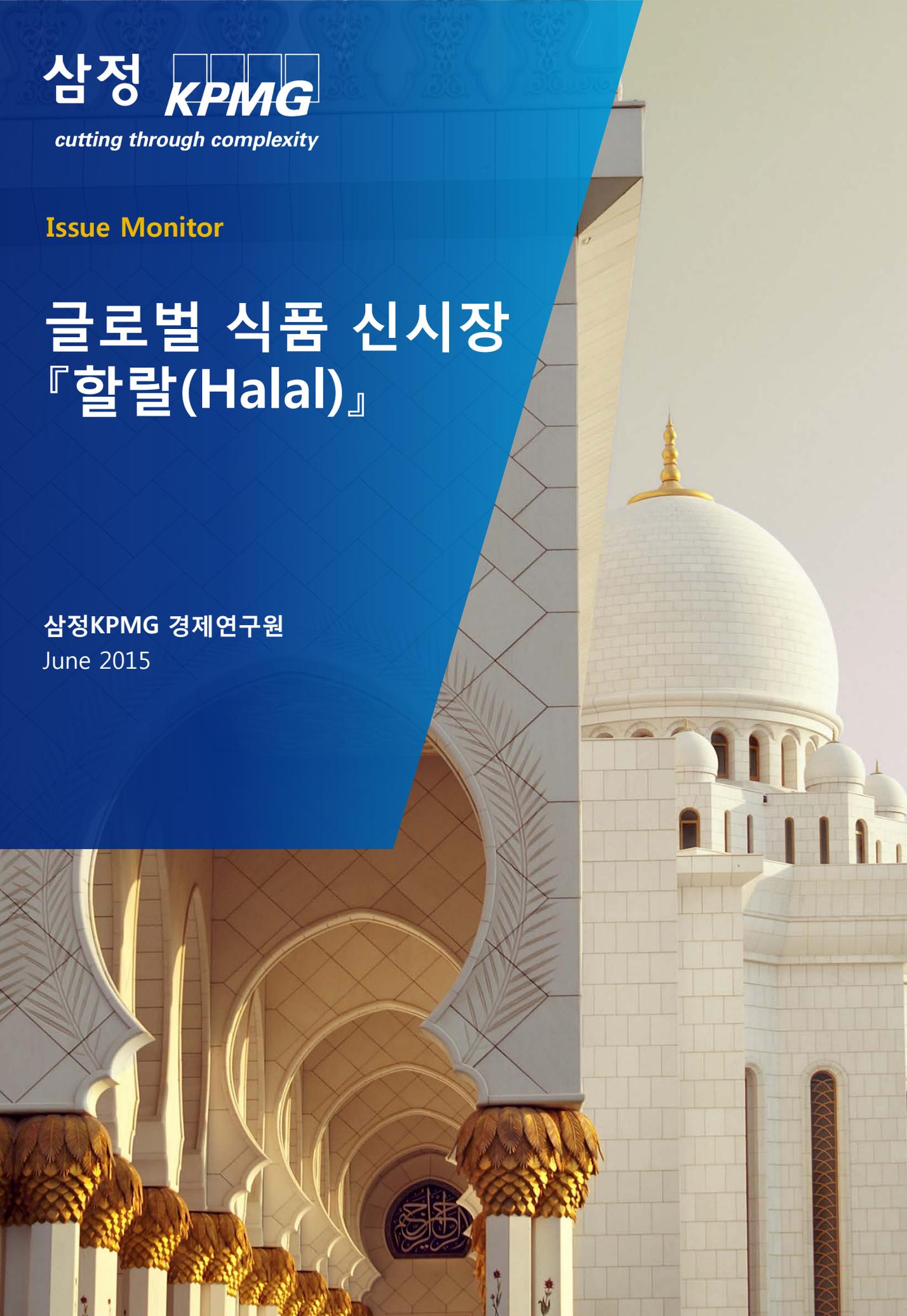
cutting through complexity

Issue Monitor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삼성KPMG 경제연구원

June 2015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범석**  
경제연구원  
원장

Tel: + 82 2 2112 0770  
[edwardkim@kr.kpmg.com](mailto:edwardkim@kr.kpmg.com)

**이광열**  
경제연구원  
사무이사

Tel: + 82 2 2112 0062  
[kwangryeolyi@kr.kpmg.com](mailto:kwangryeolyi@kr.kpmg.com)

**이효정**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Tel: +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mailto:hyojunglee@kr.kpmg.com)

**김수경**  
경제연구원  
연구원

Tel: + 82 2 2112 3973  
[sookyoungkim@kr.kpmg.com](mailto:sookyoungkim@kr.kpmg.com)

	Page
<b>[Executive summary]</b>	<b>[2]</b>
<b>[할랄 시장 부상 배경]</b>	<b>[3]</b>
■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할랄 식품	[3]
<b>[할랄의 정의 및 기준]</b>	<b>[4]</b>
<b>[글로벌 할랄 시장 현황]</b>	<b>[6]</b>
■ 16억 무슬림 위한 식품 시장, 세계 식품 시장 내 비중 확대	[6]
<b>[할랄 인증 제도 및 절차]</b>	<b>[7]</b>
■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관문, 할랄 인증	[7]
■ 인증 획득을 위한 쉽지 않은 과정	[8]
<b>[할랄 시장 선점 글로벌 기업]</b>	<b>[14]</b>
■ 할랄 식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비무슬림 다국적 기업	[14]
■ 맥도날드(McDonald's) 할랄 햄버거를 즐기는 무슬림	[15]
■ 네슬레(Nestle), 할랄 식품 시장의 선구자	[16]
<b>[할랄 인증 추진 국내 기업]</b>	<b>[18]</b>
<b>[할랄 관련 국내 정책]</b>	<b>[20]</b>
<b>[시사점]</b>	<b>[21]</b>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주)과 관계회사(이하"삼성")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시장,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삼정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정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정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정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전세계 16억명의 무슬림 소비자가 먹고 마시는 할랄(Halal) 식품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톰슨로이터의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 2014-2015'에 따르면 글로벌 할랄 식품 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 1조2,92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2조5,37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할랄 식품 시장은 연평균 11%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식품 시장의 20%를 웃도는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할랄 식품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할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할랄 인증'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할랄 시장 선점에 나선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통해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할랄 시장 부상 배경

- 최근 할랄 식품이 국내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음
  - 첫째, 글로벌 무슬림 인구 수의 증가와 이들의 구매력 향상에 따른 할랄 소비 시장 확대, 둘째, 무슬림의 문화 정체성 중시 현상, 셋째, 보호무역과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을 들 수 있음

## ■ 할랄의 정의 및 기준

-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 '신이 허락한 것'의 의미를 가짐.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뜻함
- 할랄 식품을 지칭하는 기준은 '가공-포장-보관-운송' 등 전 과정이 '할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둠

## ■ 할랄 인증 제도 및 절차

- 할랄 인증은 할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할 필수요건임
  - 전세계 150~200개의 할랄 인증 기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 기구에서 획득한 할랄 로고가 시장 진출에 유리함. 말레이시아의 JAKIM, 인도네시아의 MUI, 싱가포르의 MUIS가 공신력 측면에서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구로 꼽힘

## ■ 할랄 시장 선점 글로벌 기업

- 할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오래 전부터 진입해 입지를 구축해 온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비무슬림 국가의 기업임. 이들은 전체 할랄 식품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음
  - 세계적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McDonald's), 스위스의 종합 식품 대기업 네슬레(Nestle), 영국의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Tesco) 등은 할랄 식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할랄 관련 국내 정책 및 할랄 인증 추진 국내 기업

- 한국의 할랄 관련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6억8,000만 달러에서 2017년 12억3,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청정원, 농심, 오리온, 풀무원 등의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담배, 커피,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음
-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한-UAE 간 '할랄 식품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할랄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시사점

- 할랄 식품을 신규 비즈니스로 육성하려는 기업에게 다음 세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함
  - 첫째, 이슬람 윤리관을 이해하고 무슬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함. 둘째, 할랄 인증 제도를 심층적으로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셋째, 할랄을 제대로 준수해 진정성 있는 할랄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할랄 식품 수출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동반해야 함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 시장 부상 배경

최근 할랄 식품이 국내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할랄이 왜 지금 시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할랄에 대한 근원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스포츠라이트를 받는 할랄 식품

할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엄익란 연구교수에 따르면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 글로벌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할랄 소비 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할랄 식품 시장은 전세계 식품 시장의 약 18%를 점유하는 가운데 할랄 식품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무슬림 인구수의 증가와 무슬림의 구매력 향상을 꼽을 수 있다.

무슬림은 전세계 약 60개국에 16억여명,이 분포해 있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1950년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약 4배 증가했다. 또한 무슬림 평균 자녀수는 1960년대 7명에서 2006년 3명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자녀 출산을 미덕으로 보는 문화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다른 문화권에 비해 평균 자녀수는 많은 편에 속한다.

젊은 무슬림 인구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무슬림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중동·동남아시아에서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목격된다. 가령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 이주민을 뜻하는 '베르베르'인과 '브르조아'의 합성어인 프랑스의 '보르주아'라는 용어는 무슬림의 소비력을 반영하는 신조어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무슬림의 '문화적 정체성' 중시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 무슬림의 문화 트렌드 및 소비 패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회귀현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의식주 등의 생존문제가 해결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인간은 보다 높은 수준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지향하며, 이때가 바로 문화적 정체성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다. 제품 구입을 하고 브랜드를 선택할 때 문화적 요인이 반영되는 '문화 수렴 현상' 또한 두드러진다.

문화수렴현상은 이슬람 역내에서는 특히 걸프 지역의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유가상승에 따른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수혜의 영향으로 이슬람 문화의 정체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중동 국가가 적지 않다. 최근 무슬림 사회에서 서구권에서 태동한 소비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식문화와 패션, 미디어 등에 종교적 규범을 적용하는 이슬람식 소비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는 보호무역과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도 할랄 부상의 요인이 된다. 특히 할랄 인증이 최근 점차 보호무역의 형태를 띠어간다는 측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실례로 인도네시아는 2009년 도축과정이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배경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다. 말레이시아도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수입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포한 바 있다. 할랄 인증의 이면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슬림 국가의 새로운 전략이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네슬레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무슬림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욕구 창출을 위한 마케팅도 할랄 시장의 확대에 기여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종교적 경건성에 부합하는 할랄 제품의 소비를 촉진했으며 무슬림의 종교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지속 출시 중이다.



## 할랄 부상의 요인 ...

- 무슬림 인구 비율 증가
- 무슬림 소비력 확대
- 문화적 정체성
- 할랄 인증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등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의 정의 및 기준

### 할랄의 정의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 '신의 허락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인증을 뜻하며 현재 물류나 금융·관광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할랄은 신이 허락 했다는 종교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일종의 안심 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이슬람 교도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할랄은 다시 1)파르드(반드시 해야 할 의무, 예컨대 예배·단식·성지순례 등)와 2)만두브(하도록 권장되는 것, 예컨대 자발적 예배·단식 등) 3)무바흐(법과 무관한 행위, 예컨대 TV 시청, 외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하람(Haram)은 할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지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하람은 돼지, 피, 이슬람법에 도축되지 않은 식육, 알코올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식품, 공산품 등도 하람이 된다.

하람의 세부 의미는 1)마르크후(피해야 될 것, 예컨대 흡연, 게으름, 이혼 등)와 2)하람(금지된 것, 예컨대 무함마드의 초상화나 조각 만들기, 술과 돼지 고기 섭취 등)으로 구분된다.

“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의미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된 '할랄'

###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

할랄 식품	하람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품</li> <li>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li> <li>우유 (소, 낙타, 산양의 젖)</li> <li>벌꿀</li> <li>생선 (민물고기 제외)</li> <li>신선한 야채 (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li> <li>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li> <li>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와 콩류</li> <li>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 곡물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도주, 에틸 알코올, 화주 등의 술과 알코올성 음료</li> <li>돼지고기와 그 부산물</li> <li>피와 그 부산물</li> <li>육식동물</li> <li>개, 고양이</li> <li>민물고기</li> <li>파충류(뱀 등)와 곤충</li> <li>동물의 사체, 도살 전에 죽은 동물</li> <li>이슬람 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 동물</li> <li>그 밖에 할랄 인지 하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식품</li> </ul>

Source: 안상돈·강병규(2014), 언론보도를 토대로 재작성

Note: 정통파 수니파는 모든 물고기는 할랄로 간주하고, 일부 시야파는 새우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할랄로 간주, 하나피 학파는 새우와 가재, 게, 조개를 포함하는 모든 갑각류를 하람으로 주장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의 기준

할랄 관련 무슬림의 기본 철학은 알라를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할랄식품과 하람식품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이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하디스 등에 기준하여 정해져 있으나, 종파와 지역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고 할랄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대 이슬람 법에서는 전문가의 견해인 파트와(fatwa)의 역할이 크다.

진정한 할랄 식품의 기준은 가공부터 포장, 보관,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할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채소, 과일, 곡류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류의 경우 다비하(Dhabiha) 법에 따라 성인 무슬림이 알라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외우면서 단칼에 가축의 동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축을 한 것만 허용이 된다.

이슬람 금지 식품인 하람(Haram)은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표적으로는 돼지 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뱀, 육식 동물, 민물고기가 하람 식품이 되며 도축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고기, 썩은 고기, 육식하는 야생 동물의 고기 등도 먹을 수 없고 당나귀, 말, 노새 또한 금지 되고 있다. 메뚜기를 제외한 모든 곤충도 하람이다.

해산물은 무슬림의 각 파에 따라 이견이 분분한데, 각 파별로 해산물의 종류별로 인정되는 할랄 여부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비늘이 있는 모든 물고기는 할랄이며, 수니파는 모든 물고기를 할랄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시아파에서는 새우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할랄로 간주하고 있고, 하나피 학파는 새우와 가재, 게, 조개를 포함하는 모든 갑각류를 하람으로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이슬람 4대 학파는 하나피, 말라키, 사피이, 한발리이다.

할랄과 하람을 정하는 것은 알라만이 갖는 권한으로 인간이 함부로 정할 수 없으며 이슬람 교도는 할랄과 하람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이슬람 교도에게 있어 할랄만으로 필요충분하며 하람은 불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진다.

하람을 할랄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심스러운 것은 피해야 한다. 할랄과 하람 사이의 의심스러운 것을 뜻하는 슈바(Shubha)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할랄 식품을 제조할 때 유의할 사항은 식품의 가공, 포장, 보관, 운송 등 전 유통 과정에서 하람과 철저히 분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할랄을 요리한 식당 주방에서 특정일 외 다른 날에는 비할랄 음식을 취급한 적이 있고, 할랄이 가공/조리된 같은 도마와 냄비에서 하람이 취급된 바가 있다면, 이 때 만들어진 음식은 할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가령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정일에 할랄 푸드 코트를 운영하는 이벤트를 실시 한적이 있었지만, 위에 따르면 전 조리과정에서 진정으로 할랄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기에 할랄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가공, 포장, 보관, 운송의 전 과정이 할랄로 진행되어야 '할랄'로 인정



하람과 철저히 분리 취급되어야 ... 비할랄 음식 조리했던 도마 · 냄비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할랄로 인정 받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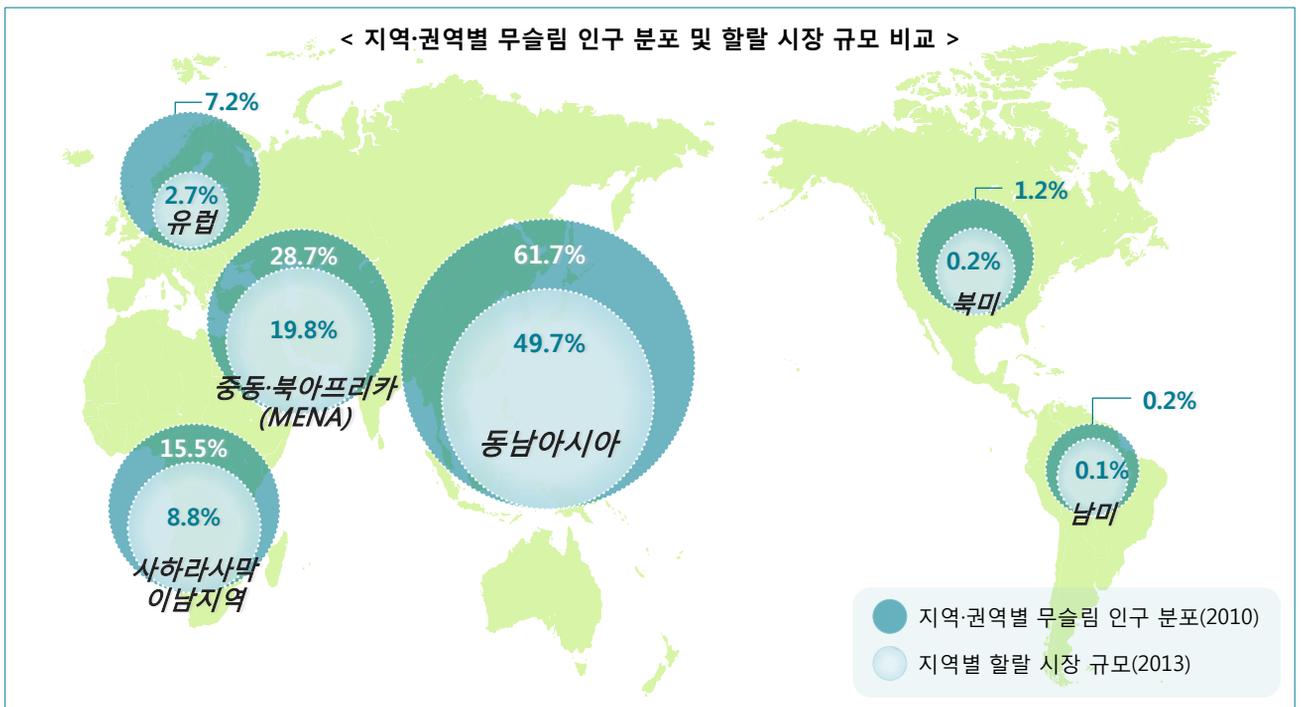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글로벌 할랄 시장 현황

### 16억 무슬림을 위한 식품 시장, 세계 식품 시장 내 비중 확대

할랄 시장의 주요 소비자는 전세계 16억명 이상의 무슬림이다. 이러한 탓에 인도, 중국에 이어 '10억명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슬람교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교로, 이슬람권 문화의 확산에 따라 무슬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할랄 식품이 보편화 되어 있다. 중동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 전체 할랄 식품 시장에서 지역별 비중을 살펴봐도 2013년 기준 동남아시아의 할랄 시장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무슬림은 2030년에 22억명에 이르면서 세계 예상 총 인구 83억명 중 차지하는 비중이 2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권역별 무슬림 인구 분포 및 할랄 시장 규모 비교 >



Source: Pew Research Center(2015), Thomson Reuters.'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Note: 전세계 지역·권역별 무슬림 인구 분포 비중은 201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지역별 할랄 시장 규모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 자료를 참고했으며, 2013년 기준 데이터임



**글로벌 할랄 식품 시장 ... 2019년에 2조5,370억 달러 규모로 커져 전세계 식품 시장의 21% 점유 예상**

아울러 이슬람 국가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급속한 인구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왕성한 소비성향을 띤다. 이러한 가운데 무슬림이 먹는 할랄 식품을 중심으로 한 할랄 시장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할랄 시장은 무슬림 증가로 인해 확고한 소비자층이 존재하며, 이에 성장 여력이 다분한 시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 2014-2015(Thomson Reuters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에 따르면, 식품·음료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 할랄 식품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1조 2,9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8% 성장했으며, 세계 식품 시장의 17.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9년까지 연평균 11.9%의 성장률로 2조 5,370억 달러 규모까지 커져 전세계 식품 시장의 2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할랄 식품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할랄 식품의 생산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 인증제도 및 절차

### 할랄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관문, 할랄 인증

할랄 인증은 할랄 시장을 거론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기업이 할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기구에서 획득한 할랄 로고이다.

할랄 인증은 할랄 시장의 핵심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무슬림에게 어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는 하나, 인증 자체가 통관에 있어 필수사항은 아니다. 이슬람이 국교라 하더라도 비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어 비할랄 제품에 대한 통관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랄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할랄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일부 교민이나 소수의 외국인 등의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시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제품 수출 시, 시장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슬람 법학과 및 지역 관습에 따라 할랄 기준이 다르며, 이에 전세계적으로 각 정부, 민간, 또는 종교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50~200개의 할랄 인증 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인증기구에서는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화장품 등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검증되지 않은 인증절차로 인증 로고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지나치게 다양한 인증 체계와 로고가 존재함으로써 인증기구 및 국가간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16억 무슬림 인구의 신뢰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구로부터 발급 받은 할랄 인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할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국가, 기관별 부여·인정하는 할랄 인증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하며, 진출하려고 하는 할랄 시장과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할랄 인증기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  
무슬림 인구의 신뢰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구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이 필요

수많은 할랄 인증기구 중 국제적으로 공인된 할랄 인증기구는 많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할랄 인증 기구 중 인지도가 높은 주요 할랄 인증 기구로 다섯 개 정도가 꼽힌다.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인도네시아의 MUI(Majelis Ulama Indonesia), 미국의 IFANCA(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싱가포르의 MUIS(Majelis Ugama Islam Singapura) 등이 주요 인증기관이다. 이 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NHA(South African National Halal Authority), 영국의 MCB(Muslim Council of Britain) 등이 지역별 인지도가 높은 대표 기관으로 꼽힌다. 더불어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 ESMA)은 지난 2014년 10월 할랄 로고를 발표한 후로 할랄 인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UAE는 중동 지역의 할랄 산업을 육성하고 할랄 산업의 종주국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근 할랄 인증 관련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한국의 경우, 한국 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에 속해 있는 할랄 위원회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KMF의 할랄 인증은 주로 식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화장품이나 의약품 부문에 대한 국내 인증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한편 KMF 인증은 말레이시아 JAKIM 인증과 인도네시아 MUI 인증과 동등성을 획득하면서 주요 할랄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은 한결 수월해졌다. 이와 같이 국내 할랄 인증이 예전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바이어들이 KMF가 국제 인증 기관이라는 사실과 JAKIM과의 상호 동등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직은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KMF에서 획득한 할랄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국가별 주요 할랄 인증 기구 >

국가	인증기구명
말레이시아	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인도네시아	MUI: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
싱가포르	MUIS: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싱가포르 이슬람교 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MWL: Muslim World League 무슬림 세계 연맹
남아프리카공화국	SANHA: South African National Halal Authority 남아공 할랄청
미국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호주	할랄 오스트레일리아(Halal Australia)
독일	할랄 콘트롤(Halal Control)
영국	MCB: Muslim Council of Britain 영국 무슬림 위원회
대한민국	KMF: Korea Muslim Federation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UAE	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 UAE 표준측량청

Source: KOTRA 및 언론 보도자료

“  
주요 할랄 인증 기구 ...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싱가포르 MUIS  
미국 IFANCA 등

## 할랄 인증 획득을 위한 쉽지 않은 과정

할랄 인증은 완제품만을 보고 부여되지 않는다. 각 인증기관이 마련한 절차 및 심사과정에 따라 이뤄지며 이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단순히 완성된 제품뿐만 아니라, 처리 - 가공 - 유통 등 제품의 생산·제조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할랄 식품이 '신이 허락한 음식'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할랄 식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뿐만 아닌 가공-위생-유통 전반적 과정에서 일정 조건 충족해야

축산물의 경우에는 도축과정도 할랄 인증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 품목 대비 더욱 까다롭다. 이슬람의 율법에 맞게 도축하는 행위를 '다비하'라고 하며, 인간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동물의 경우 반드시 '다비하'를 따라야 한다.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 도축하기 위해서는 무슬림 도축업자를 확보하고, 날카로운 도축도구를 갖추는 것은 물론 절단 방법까지 따라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뒤따른다.

일반적인 식품의 할랄 인증은 가공, 위생, 유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할랄 인증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카운셀링 △신청서 △서류검토 △공정·인증 신청지 심사 △현장조사 △평가회의 △인증승인 위원회 △인증서발급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무슬림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정직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등 무슬림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 할랄 인증 절차 >

```

            graph TD
            A[선정] --> B[서류심사]
            B --> C[신청자에게 현장점검 통보]
            C --> D[현장점검]
            D -- 부적합 --> E[부적합 보고]
            E --> F[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F --> G[확인점검]
            G --> H[인증심사 위원회 최종결정]
            H --> I[할랄인증서 발급]
            E --> H
            
```

### < 할랄 식품 생산 공정별 조건(JAKIM 예시) >

공정	준수사항
원재료	• 할랄인 것
식육처리	• 할랄의 개념을 이해한 무슬림이 샤리아법에 따라 도축
중간재 투입	•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더라도 하람인 것은 사용 불가
공장	• 하람인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 • 양돈장, 하수처리시설로부터 분리
제조기계	• 나지스(부정)한 것(하람)에 접촉하지 않을 것 • 세척하기 쉽게 설정
공장조업	• 양호한 위생상태
포장	• 디자인, 심볼, 로고 등은(할랄 인증 관련)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됨 • 할랄 인증 표시는 등록 시의 것을 사용
보관 및 저장	• 하람인 것과 분리 보관
판매	• 소매의 경우 비할랄 상품만 진열하는 코너 설치 혹은 할랄 상품만 진열하는 할랄 전용 코너 필요

Source: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  
공신력 측면 세계 할랄  
인증 기구 양대 산맥

각 지역·권역에 분포되어 있는 할랄 인증 기구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가 공신력 측면에서 세계 할랄 인증 기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가 주도한 할랄 규격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널리 인증을 받고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JAKIM과 함께 세계 최대 할랄 식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기구 MUI도 대표적인 할랄 인증 기구로 손꼽히며, 최근 말레이시아 JAKIM에 대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증 기구에 따라 할랄 인증 획득 절차는 각각 다르므로, 공신력 있는 세계 할랄 인증 기구 중 말레이시아 JAKIM과 인도네시아 MUI를 꼽아 세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 (1) 말레이시아 JAKIM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이 담당하고 있다. JAKIM이 부여한 할랄 인증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

구분	내용												
할랄 인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AKIM</li> <li>- 2012년부터 정부기관 JAKIM이 말레이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 기구로 지정됨</li> <li>- JAKIM의 할랄 허브부(Halal Hub Division)가 실제 인증업무 및 신청절차 처리, 공장실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처리함</li> </ul>												
할랄 인증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소개 자료</li> <li>- 법인 등록 사본</li> <li>- 인증제품 소개</li> <li>- 사용된 원료</li> <li>- 재료공급업체 및 제조업체명 및 주소</li> <li>- 제품에 투입되는 각 생산원료에 대한 할랄 인증 사본</li> <li>- 포장 재질의 종류</li> <li>- 제품 제조 공정 및 절차</li> <li>- 타 인증서(예: HACCP, ISO, GHP, GMP, TQM)</li> <li>- 현장 또는 공장의 위치·지도</li> </ul>												
소요비용 및 기간 (국내 인증)	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비용(RM)</th> </tr> </thead> <tbody> <tr> <td>소기업 (Small Industry)</td> <td>- 연매출 50만RM(링깃) 미만 - 상시고용인 50명 미만</td> <td>200</td> </tr> <tr> <td>중소기업 (Small &amp; Medium Industry)</td> <td>- 연매출 50만~250만 링깃 - 상시고용인 50~150명</td> <td>800</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비용(RM)	소기업 (Small Industry)	- 연매출 50만RM(링깃) 미만 - 상시고용인 50명 미만	200	중소기업 (Small & Medium Industry)	- 연매출 50만~250만 링깃 - 상시고용인 50~150명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국가 이상의 지역에서 해외법인 및 자사 보유</li> <li>- 연매출 250만 링깃 이상</li> <li>- 상시고용인 150명 이상</li> </ul>	1,400
		구분	기준	비용(RM)									
		소기업 (Small Industry)	- 연매출 50만RM(링깃) 미만 - 상시고용인 50명 미만	200									
	중소기업 (Small & Medium Industry)	- 연매출 50만~250만 링깃 - 상시고용인 50~150명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인증(International Certification)의 경우 수수료 발생</li> <li>- 아세안 국가의 경우 2,100RM이며, 아세안 외 국가는 USD 2,000임</li> <li>- 할랄 인증 실사단의 교통 및 숙박비도 신청기업에서 부담</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 기간</li> <li>-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제품·업체별 차이가 존재하나 할랄 증명의 모든 조건과 절차 준수 시 약 2개월 소요(국제 인증도 동일)</li> </ul>												

Source: KOTRA, JAKIM

Note: RM(링깃)은 말레이시아 화폐단위이며, 2015년 5월 28일 기준 100RM = 30,367원임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말레이시아 국민 사이에서도 JAKIM이 부여한 할랄 인증이 아니면 외면 받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은 TV 광고 등을 통해 JAKIM의 할랄 인증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말레이시아 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에 말레이시아 또는 기타 이슬람국에 할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다소 힘들더라도 말레이시아 JAKIM의 획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말레이시아는 2012년부터 법적으로 자국의 할랄 인증인 JAKIM 혹은 동등성을 인정받는 할랄 인증 로고가 없으면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할랄 인증 획득이 필수가 됐다. 기존 할랄 인증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실시되었다면, 이제는 법제화로 인해 할랄 시장 문턱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 되어버린 것이다.

“  
**JAKIM 인증,  
 미국의 IFANCA 등  
 타국가 할랄 인증  
 기구와의 교차인증  
 가능**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으로, 이슬람 국가의 할랄 허브(Hub)가 되고자 하는 목표로 범 정부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JAKIM은 할랄 인증 표시와 관련한 법률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할랄 국제 통합 인증기구(ICC)는 없기 때문에, 할랄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실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JAKIM의 인증을 획득할 경우, 미국의 IFANCA 등 공신력 있는 타국가의 할랄 인증 기구와의 상호인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 기업이 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AKIM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식당, 호텔 등 상당수 분야에 걸쳐 할랄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에 대한 인증은 식품, 화장품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JAKIM은 할랄 인증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만큼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군 및 자사 사업영역에 따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2) 인도네시아 MUI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 2억3천만명 중 약 88%가 무슬림인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는 단일 시장 기준으로 할랄 시장의 규모가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인구는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무슬림 인구의 약 12%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 수는 약 13,000여개이며 의약품 및化妆품을 포함할 경우 할랄 제품 수는 2만여 개에 달한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류 시장 규모만 연간 7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기구에서 부여하는 할랄 인증으로 할랄 시장을 공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구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곳 중 하나로 꼽힌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 >

구분	내용			
할랄 인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U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서를 발급, 발행을 담당하는 기관임</li> <li>- 할랄 인증의 유효성은 현행 2년간 유지</li> </ul> </li> <li>• <b>LIPPOM MU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MUI)의 부속기관임. 과학과 기술의 관점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 할랄성을 평가하는 MUI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li> <li>- LIPPOM MUI 중앙기관과 33개의 지역기관으로 구성</li> </ul> </li> </ul>			
할랄 등록 절차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1) 사전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신청</li> <li>- 할랄 인증 계약</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b>(2) 검사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제품, 시설, 조리법 등에 대해 검사</li> <li>- 할랄 인증 시스템 수행 검증 (할랄 정책, 할랄 팀, 인증 절차 등)</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b>(3) 검사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 보고</li> <li>- 재료 교체 허가 등</li> </ul> </td> </tr> </table>	<b>(1) 사전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신청</li> <li>- 할랄 인증 계약</li> </ul>	<b>(2) 검사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제품, 시설, 조리법 등에 대해 검사</li> <li>- 할랄 인증 시스템 수행 검증 (할랄 정책, 할랄 팀, 인증 절차 등)</li> </ul>	<b>(3) 검사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 보고</li> <li>- 재료 교체 허가 등</li> </ul>
<b>(1) 사전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신청</li> <li>- 할랄 인증 계약</li> </ul>	<b>(2) 검사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제품, 시설, 조리법 등에 대해 검사</li> <li>- 할랄 인증 시스템 수행 검증 (할랄 정책, 할랄 팀, 인증 절차 등)</li> </ul>	<b>(3) 검사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 보고</li> <li>- 재료 교체 허가 등</li> </ul>		
할랄 인증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재료 목록 및 재료 일람표</li> <li>- 원료 근거 서류</li> <li>- 인증 받을 제품의 생산 공정 흐름도</li> <li>- HAS(Halal Assurance System, 할랄보증시스템) 매뉴얼</li> <li>- 할랄인증 신청 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 차트</li> <li>-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li> <li>-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 (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li> <li>- 제조공장 정보</li> <li>- 제품 및 원료 정보</li> <li>- 업체 소개</li> <li>- 감사 출장 여정(왕복) 등</li> </ul> <p>*도축/연회서비스/식당의 경우 필요 서류에 차이가 다소 존재함</p>			
소요비용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100~500만 Rp(루피아) 소요 (품목·업체별 차이 존재)</li> <li>- 대행업체를 이용해 할랄 인증을 획득할 경우, 신청비 및 컨설팅 비 포함 약 2,000~3,000만원 소요</li> </ul> </li> <li>• <b>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1~2개월 소요 (품목·업체별 차이 존재).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랄인증 등록시 약 2개월~1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li> </ul> </li> </ul>			

Sourc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할랄시장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Note: Rp(루피아)는 인도네시아 화폐단위이며, 2015년 5월 28일 기준 10000Rp = 844원임



**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할랄 인증  
여부 표시 의무화**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비할랄(non-halal) 식품, 의약품, 화장품 품목에 대해 '이 제품은 비할랄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14년 9월 통과됐다. 기존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은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할랄 인증이 의무화 됨에 따라 향후 할랄 규제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할랄 인증과 관련해 발효된 법안으로는 처음이다. 아울러 할랄 인증 품목 및 인증 발급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진출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 (개정 후) >

구분	내용
<b>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관련 주요 변경 사항</b>	<p><b>(1) 할랄 인증 의무 품목 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획득 필수</li> </ul> <p><b>(2)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라야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 공급·생산·보관·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 제품 공급과정(Halal Product Processing)을 준수해야 함</li> </ul> <p><b>(3) 인증 발행기관 신설로 인증발급 절차 세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MUI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할랄 인증을 새로운 인증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 Produk Halal)를 설립해 인증발급 절차를 세분화</li> </ul> <p><b>(4) 비할랄(non-halal) 제품의 경우 'Non-halal' 라벨 부착 의무화</b></p> <p>❖ 모든 수입제품 역시 해당 법령에 해당되며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전에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함. 해외 할랄 인증 중 BPJPH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됨</p>

Source: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할랄시장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 시장 선점 글로벌 기업

### 할랄 식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비무슬림 다국적 기업

전세계 16억 무슬림 인구가 즐기는 1500조원에 이르는 할랄 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다국적 식품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최근 들어 무슬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 북미 및 유럽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비교할 때, 할랄 시장 공략 움직임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기업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할랄 시장으로 대표되는 주요 국가에서의 인증 획득을 서두르면서 진출에 나서고 있다.

할랄 식품 시장은 매년 20% 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다. 할랄 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가능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할랄 관련 시장과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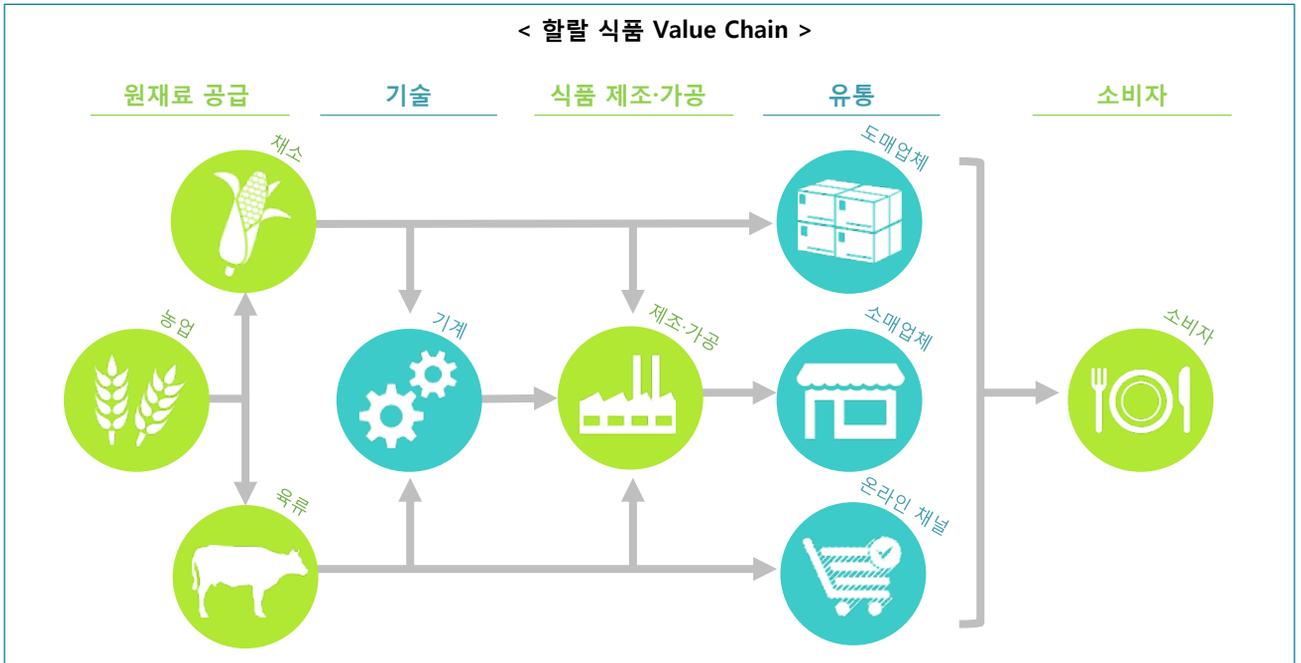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 있듯,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 전 가치사슬에 걸친 모든 부문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할랄 식품 가치사슬인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재료를 가공·생산하고, 유통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할랄 기준에 부합한 공정을 갖추거나 혹은 파트너를 보유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할랄 시장은 인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탓에 식품업체가 쉽게 넘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일련의 과정을 충족시키면서 할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다국적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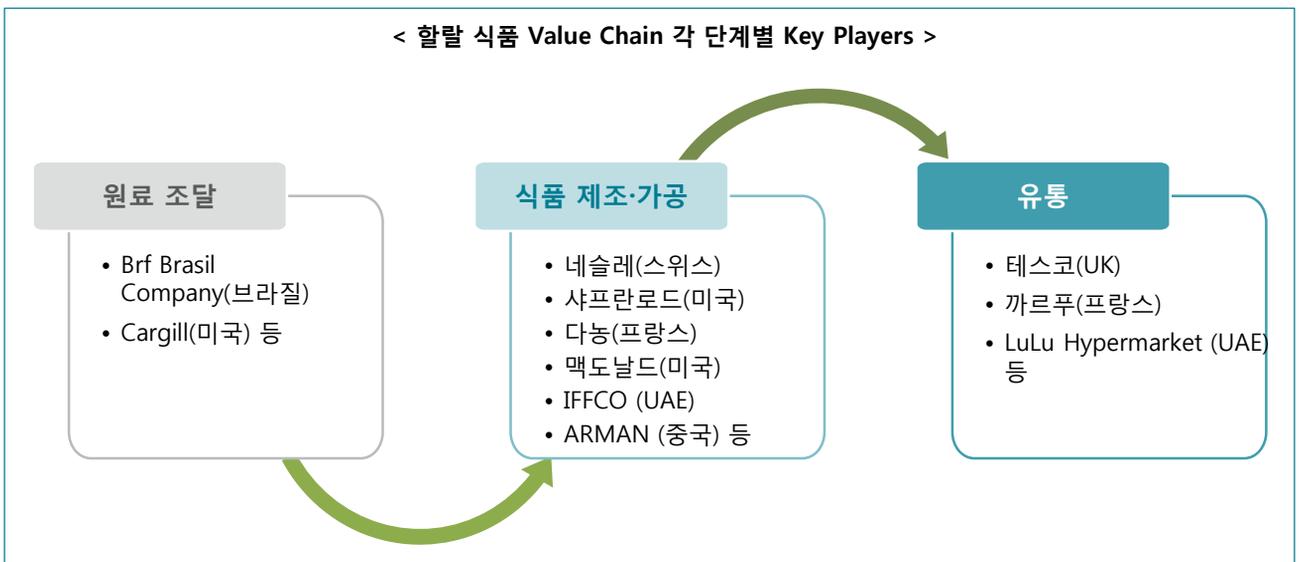
이들 다국적 기업 중 대부분은 비무슬림 국가의 기업이다. 할랄 시장에 오래 전부터 진입해 입지를 구축해 온 다국적 기업은 전체 할랄 식품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적인 패스트식품 기업 맥도날드(McDonald's)를 비롯해 버거킹(Burger King), KFC와 종합 식품 대기업인 스위스 네슬레(Nestle), 대형 유통기업 영국 테스코(Tesco) 등의 다국적 브랜드는 할랄 시장의 잠재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할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갱신하며 해당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했다. 프랑스 식품업체 다농(Danone)의 경우, '아쿠아워터(Aqua Water)'를 할랄 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다. 삼정KPMG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할랄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맥도날드와 네슬레 두 기업의 사례를 더욱 깊이 살펴보았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Source: Thomson Reuters, 'State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Source: Thomson Reuters, 'State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 맥도날드(McDonald's) 할랄 햄버거를 즐기는 무슬림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McDonald's)는 일찍이 할랄 식품 시장의 잠재성을 간파했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맥도날드는 1995년에 식품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식기 등의 제품, 운반과정, 보관 및 조리,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독보적인 할랄 인증 기관 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패스트푸드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었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맥도날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말레이시아 대표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현재 말레이시아 내 모든 맥도날드 점포는 할랄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며, 맥도날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패스트푸드점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말레이시아 도시 중심가 곳곳에 위치한 맥도날드 점포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60%가 무슬림 인구인 사실을 고려할 때, 맥도날드가 말레이시아에서 성장하는 데 할랄이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맥도날드는 단순히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맥도날드가 말레이시아 무슬림 인구에게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데는 JAKIM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 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맥도날드는 매장마다 'DITANGGUG HALAL(할랄 인증을 받았다)'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았고, 인터넷을 통해 제품의 유통과 조리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힘썼다. 그 결과 무슬림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맥도날드는 공식홈페이지(<http://www.mcdonalds.com.my>)에 할랄 인증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개, 게시해두고 있다. 'Halal Policy(할랄 정책)'을 두고 자사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100% 할랄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엄격하고 엄정한 관리 감독 하에 지속적인 할랄 인증 관련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



**'샤리아 어드바이저' 보유 동시에 제조·공정·유통 전 과정에서 체계적 할랄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가령, 말레이시아 맥도날드는 두 명의 '샤리아 어드바이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데, '샤리아 어드바이저'란 각 거래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 되도록 당사자들에게 어드바이스나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할랄 코디네이터, 원재료 구매 관련 총괄 책임자, 비용/운영 관련 책임자, 품질 관리자 등의 이름을 공개해두고 있다 이로써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무슬림의 입에 들어가는 제품의 제조·공정 등 전 과정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를 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맥도날드는 말레이시아에 매년 15~20개 매장을 개점할 정도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맥도날드는 할랄 햄버거로 매달 1,0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찾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으로 성장했으며, 2015년 5월 현재 매장 수 250여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웰니스(wellness) 열풍으로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찾는 소비자가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이는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맥도날드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싱가포르에도 진출해 성공을 거뒀으며, 최근 호주와 영국에도 할랄 맥도날드 점포를 오픈했다.

## 네슬레(Nestle), 할랄 식품 시장의 선구자

세계적인 식품기업 네슬레(Nestle) 역시 할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일찌감치 이 시장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네슬레는 1992년부터 할랄 제품 개발을 시작해 할랄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하는 무슬림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샤리아 법에 부합하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왔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네슬레 그룹은 19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 내 모든 제조설비에서 할랄 관례를 따라왔다. 1980년부터는 기업 내부에 할랄 위원회를 설치하고, 할랄 식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으며, 1992년에 그룹 차원의 할랄 정책을 정식으로 도입해 할랄 식품 개발에 나섰다. 네슬레는 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후 '네슬레 할랄 가이드라인(Nestle Halal Guideline)'을 제정하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 표준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2010년에 세계 최대 할랄 식품 생산업체로 등극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네슬레는 전세계 450여개 공장 중 85개 공장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고, 말레이시아 내 7개 할랄 식품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할랄 공장에서 네슬레는 커피, 과자 등 150여 종류의 할랄 식품을 생산, 제조하고 있다. 네슬레 말레이시아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가운데 4분의 1을 할랄 제품의 수출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네슬레는 자사의 모든 식품이 100% 할랄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세워둔 지침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습득한 할랄 노하우를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네슬레는 할랄 식품 판매 증가율이 연평균 50%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분유, 수프, 사탕류를 할랄용으로 기획, 제조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네슬레는 할랄 식품 연례보고서(Our Halal Promise)를 발간하여 그룹의 할랄 관련 사항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네슬레의 경우, 지역적으로 다양화된 할랄 인증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네슬레는 표준화된 할랄 인증 로고를 채택하는 대신 인증제도의 파편화를 역이용해 각 이슬람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할랄 인증을 개별적으로 획득하여 할랄의 현지화(localization)에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은 무슬림의 새로운 '니즈(needs)'를 자극하여 종교적 소비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할랄 제품의 소비를 통한 종교적 경건성을 강조하면서 무슬림의 종교적 소비행태에 부합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식품을 넘어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건강보조제 등 비식품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할랄 시장으로까지 눈독 들이고 있다. 콜게이트(Colgate) 치약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금지된 어떠한 동물성 재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표적인 할랄 치약 브랜드로 부상했다. 향후에도 이들 기업의 할랄 인증 획득 추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네슬레,  
각 이슬람 국가에서  
인지도·공신력 높은  
할랄 인증 개별 취득해  
'할랄의 현지화' 실현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 인증 추진 국내 기업

할랄 관련 시장에 대한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기준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12억 3,000만 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담배, 커피, 과자, 라면 등의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랄 인증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내 기업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대상 청정원은 2011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할랄 인증 제품 수출을 시작, 총 19개 품목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다. 청정원은 2013년까지 마요네즈, 김, 유지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위원회를 통해 MUI 할랄 인증을 받았다.

대상 청정원은 2014년에는 추가적으로 맛소금, 미역 등 6개 품목에 대해 한국 무슬림 중앙회를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할랄 인증 취득에 따라 할랄 시장 수출액은 2011년 6억원 수준에서, 2013년에는 13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2014년에는 스낵김 2종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인 34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대상 FNF는 2009년 맛김치, 포기 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등 총 4종 증가집 김치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고, 인증 후 2009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2010년부터는 UAE에 수출을 시작하였다.

농심은 2011년부터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신라면을 제조, 수출 중에 있으며 인증에 맞추어 스프에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콩 단백질을 이용해 맛을 내고 있다.

농심은 2011년 4월에 부산에 할랄 전용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김치 라면 등으로 인증 제품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2013년에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권위의 할랄 식품 인증기관 JAKIM 으로부터 신라면 할랄 인증을 얻어냈으며,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뛰어난 비상장 식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아워홈은 2014년 말 조미김에 이어 대표 한식인 김치에 대해 국제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고 향후 유럽, 미주, 중동, 동남아 등 이슬람 시장이 형성된 해외 모든 지역에 인증된 김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김치 외에도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닭갈비 등 이슬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한식의 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5년 9월 문을 여는 인천 국제 공항 아워홈 푸드 코트에는 할랄 코너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이슬람권 방문객이 급증함을 반영하여, 아워홈은 이들이 쉽게 공항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다양한 한식품을 접하게 하고 이들에게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아워홈은 기존 안산 공장 내에 할랄 전용 식품 제조 공정을 설립 중에 있다.

풀무원은 2014년 7월 튀기지 않은 라면 2종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라면 제품은 그 전보다 판매량이 30배 가까이 증가할만큼 영향이 컸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할랄 시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잠재력이 큰 만큼 다른 제품으로도 할랄 인증을 확대해 글로벌 수출 전략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제과는 꼬깔콘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았으며 빼빼로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이다. 오리온은 초코파이가 대표 할랄 인증 식품인데, 초코파이 내부에 들어가는 돼지기름 추출 젤라틴을 식물 성분으로 대체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농심,  
인증에 맞추어 스프에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콩 단백질 사용



오리온,  
초코파이에 들어가는  
돼지기름 추출  
젤라틴을 식물성분으로  
대체하여 인증 취득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동아원은 국내 제분업체 최초로 말레이시아 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할랄 밀가루 수출은 무엇보다 그 동안 할랄식품 수출의 대부분을 김치,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이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원재료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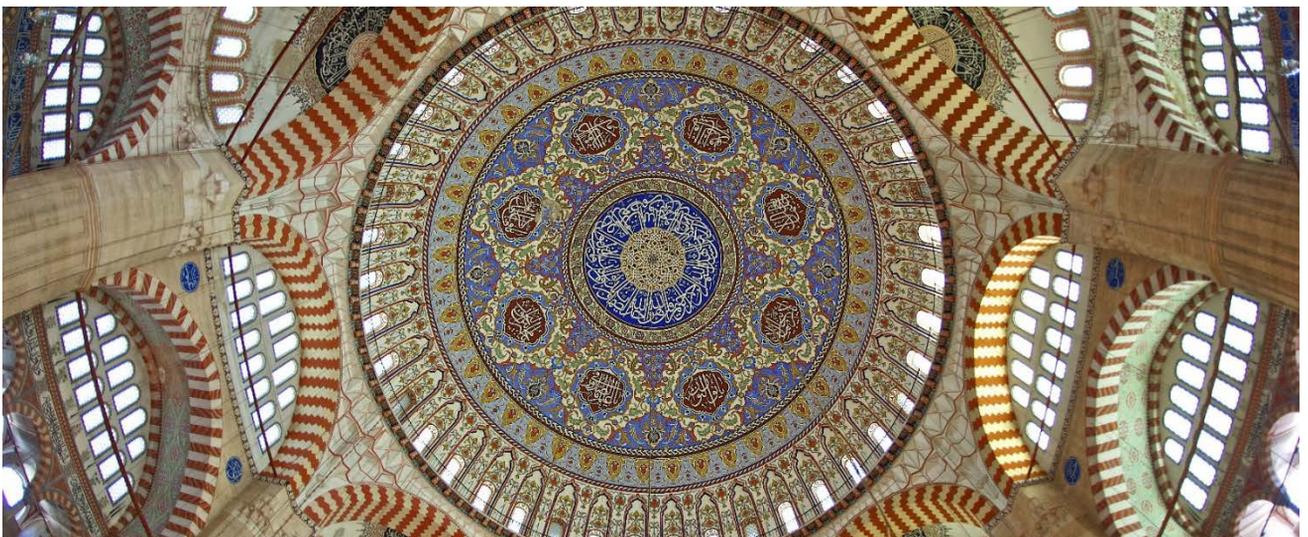
서울우유와 빙그레 역시 자사 유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JAKIM으로부터 2015년 3월 12일 할랄 인증을 받았고 곧 이슬람 권에 할랄 유제품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외식업계의 할랄 시장 진출 또한 활발하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롯데리아, BBQ, 레드망고 등 한국 외식업체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BBQ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는 고추장 대신 칠리소스로 매운맛을 낸 '이슬람용' 양념 치킨을 인증 받아 싱가포르 매장 등에서 판매한다. 롯데리아도 인도네시아 매장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 주요 국내 식품업체 할랄 인증 현황 >

업체	인증제품	특징·목표 및 계획
농심	• 할랄 신라면, 컵라면 등 9개	• 이슬람 국가 수출
풀무원	• 자연은 맛있다 2종	• 할랄 생라면 품목 확대 추진
오리온	• 초코파이	• 돼지 젤라틴 대신 소성분 젤라틴 사용
롯데제과	• 꼬깔콘	• 뽀빠로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 준비 중
남양유업	• 급식용 멸균초코우유	• 일반우유, 분유, 커피 등으로 확대
대상NFC	• 종가집김치	• 인도네시아, UAE 동서 39만 달러 수출
크라온제과	• 조리품 등 스낵 4종	• 동남아시아 거점 확대 계획
CJ제일제당	• 햇반, 하선정김치 등 43개 제품	• 5년 내 매출 1000억원 돌파 목표

Source: 한국할랄산업연구원, Thomson Reuters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 관련 국내 정책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을 순방 시, UAE 와 할랄 식품 협력 증진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할랄 시장에 대한 국내 정책 입안자 및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4년 자체적으로 할랄 식품 인증 기준을 만들고 주변 걸프 국가는 물론 전 세계 58개 무슬림 회원국 기구에 할랄 식품 인증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할랄 식품 시장의 허브 중 하나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할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 식품 클러스터 안에 할랄 푸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할랄 식품 관련 사업단 및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농식품부는 할랄 식품 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할랄 식품 사업단은 할랄 식품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운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할랄 식품 사업단은 앞으로 할랄 식품 연구와 이슬람권 수출용 제품을 개발, 전통식품의 할랄 인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할랄 식품 관련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14년 6억 8,000만 달러 정도에 그쳤던 할랄 식품 수출액이 2017년까지 12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15년 5월, 2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4월부터 현장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가지 연구 과제로는 1)플랜트 단위 생산공정에 대한 할랄 인증 지원, 2) 할랄 식품 진위 판별을 위한 신속 진단기법 개발, 3) 국내 고유 농산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유래 향장용 제품 개발, 4) 이슬람 시장에 수출 가능한 전통 장류 개발, 5)한국형 할랄 K-FOOD 식품 및 대체원료(소재) 개발 등이 있었다.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농심·대상·CJ 등 식품외식업계,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할랄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할랄식품 분과위원회에서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정·육성 및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 등에 관한 8대 과제를 선정한 농식품부는 분과위의 조율 과정을 거쳐 2015년 6월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 3월 16일에 개최된 부산 창조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유관기관들과 '수산식품 가치 고도화 및 할랄 인증 지원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산식품의 할랄 인증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출 유망 상품화 사업'을 통해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이슬람 국가 및 업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산 식품 홍보 및 마케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주요 수산박람회 참가하여 무슬림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초청 시식회를 개최하고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 아랍권 수산 박람회 참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2015년 3월  
할랄 식품 사업단 출범  
... 2017년까지 할랄  
식품 수출액 12억 달러  
목표**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 할랄 시장 부상 배경

할랄 식품에 대한 국내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할랄 식품을 신규 비즈니스로 육성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한 할랄의 정의와 기준, 할랄 인증 제도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은 근본적으로 '이슬람 윤리관을 이해하고 무슬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다. 즉, 할랄이 왜 부상했는지, 구조적·문화적·경제적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슬람의 윤리관에서는 정의라는 가치를 중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기만과 속임을 금지한다. 이 가운데 진정한 할랄 식품이 아닌 식품을 할랄로 속여서 판매하거나, 과대 포장하여 홍보한다면 이슬람 시장에서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 < 할랄 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고려 사항 >

- ✓

### 이슬람 윤리관 이해 및 신뢰 구축
- ✓

### 할랄 인증 제도 숙지 및 전략적 대응
- ✓

### 할랄 식품 수출 활성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실례로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할랄 치킨 샌드위치에 대한 허위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2013년 1월 지역 무슬림 공동체에 7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중국 신장의 한 회사는 가짜 할랄 인증 마크를 내세우며 제품을 판매한 결과 중국 내 위구르 무슬림의 공분을 샀다.

2015년 5월 한국에서도 일반 육류를 할랄 식품이라고 속여서 유통한 식품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되어, 이들 식품업체 대표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가짜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얕은 수는 기만을 죄악시키는 무슬림의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충수가 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할랄 인증 제도를 심층적으로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할랄은 앞서 강조한 것처럼 금지 식품 몇 가지만 있는 차원이 아닌 '식품의 공급망 전체' 프로세스에서 준수되어야 진정성을 지닌다. 따라서 할랄의 근본 정의를 사전적으로 숙지한 뒤 할랄 관련 각국의 인증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할랄 인증 관련 국가 간 보이고 있는 경쟁 구도 양상도 이해하여야 이에 대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할랄 인증 시장에서의 교차 인증과 표준화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교차 인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가령 네슬레의 경우 오히려 국가별, 지역별 다각화되어 있는 할랄 인증 제도를 활용해 할랄 식품의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네슬레는 진출 이슬람의 각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할랄 인증을 개별적으로 획득해 각 시장 소비자의 니즈에 발맞추는 전략을 선보였다.

세 번째 시사점은 할랄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과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랄 식품의 인증을 위해서는 일반 식품에 비해 여러 가지 사항이 준비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자사의 현황상 중장기적으로 할랄을 제대로 준수하여 진정성 있는 할랄 식품을 수출할 준비가 되어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할랄 식품붐이 시작된 것을 감지하고 당장 할랄 식품의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자사에게 리스크로 다가오지는 않을지 판단하며 할랄 시장 진출의 최적기를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 해안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 < 이슬람 고객 한국 방문시 할랄 식품 Tips >

최근 이슬람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할랄 식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할랄 전용 식당 등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할랄 식품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할랄 식품이 가능한 곳으로 최선을 다해 안내를 한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Tips	세부 내용
항공편 할랄 기내식 사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적지 않은 항공사들이 기내식으로 할랄 식품을 제공한다. 할랄 인증을 받은 기내식을 제공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항공편 예약시 할랄 기내식이 제공되도록 사전적으로 신청한다.</li> </ul>
한식 메뉴 중 할랄 vs 하람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여도 할랄 인증을 받은 않은 소고기는 섭취하지 않는 무슬림이 절대 다수이다.</li> <li>한국의 한정식 메뉴 중 '떡갈비' 등도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소고기로 조리가 되었다면 이는 할랄이 아닌 하람이다. 한정식 메뉴 중 비빔밥 등에 들어가곤 하는 '쭈꾸미' 등 문어과로 조리된 식품도 할랄이 아니다.</li> </ul>
할랄 인증 국내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이 자주 찾는 국내 한정식당 중 할랄 인증을 받은 곳이 일부 있다. 이와 같은 한정식당은 손님이 요청할 때 할랄 인증서를 보여주기도 한다.</li> <li>한정식당 외 서울 이태원 및 강남역 소재 파키스탄, 인도, 터키 레스토랑은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다.</li> </ul>
호텔 예약시 할랄 식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호텔 중 할랄 식사를 사전적으로 요청하면 호텔 조식 뷔페에도 할랄 메뉴를 마련해주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육류를 사전적으로 구매를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이슬람 고객이 투숙할 호텔에 사전적으로 할랄 메뉴를 신청하는 것이 있다.</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

원장

T: 02-2112-0770

E: [edwardkim@kr.kpmg.com](mailto: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mailto:kwangryeolyi@kr.kpmg.com)

**이효정**

수석연구원

T: 02-2112-6744

E: [hyojunglee@kr.kpmg.com](mailto:hyojunglee@kr.kpmg.com)

**김수경**

연구원

T: 02-2112-3973

E: [sookyoungkim@kr.kpmg.com](mailto:sookyoungkim@kr.kpmg.com)

[www.kpmg.com/kr](http://www.kpmg.com/kr)

© 2015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